

팔부능선을 넘은 오바마케어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고지를 점령한 오바마케어

□ 2012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2010년 4월에 승인된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법안¹⁾은 2012년 6월 대법원의 ‘헌법 합치 선언’, 같은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그리고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이렇게 세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획득하며 공화당 하원의장 John Boehner로부터 “오바마케어는 이제 지엄한 국법이다”란 선언을 이끌어내

□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오바마케어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거점으로 여겼던 공화당원들이나, 오바마케어가 승인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효하게 된 사실에 흥분한 민주당원들이나, 모두, 이제 ACA는 업연한 미국의 법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공화당원들이 우려하

는 복지국가 혹은 민주당원들이 부르는 사회안전망을 설립할 법안이 이념 논쟁의 테이블을 떠나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역사의 분수령에 서게 돼

법안이 가져다 올 변화

□ 2010-2011년 법안의 이행 작업에 참여했던 시카고대학의 Elbert Huang 박사는 Medill Reports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가 2014년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전인 2013년에는 일반인들이 체험할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 법안이 본격 이행되는 2014년까지 각 주는 의료보험개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험거래소(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s²⁾)

1) 공식 명칭은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로 보통 Affordable Care Act 혹은 Obamacare로 불리고 있음.

2) Washington Times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exchange가 스페인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앞으로 ‘online marketplaces’로 명명키로 함.

를 설립해야 하며 - 주정부가 설립을 거절할 경우 연방정부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 이를 계기로 약 3천만명이 새로이 의료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추정돼, 미국민은 1965년 메디케어의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인 국민의료보장의 확대를 목도하게 될 것임.

- 보험사들은 더 이상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병에 걸린 가입자의 탈퇴를 종용할 수 없게 되며,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금의 일정분 이상 (20%)을 가입자의 의료보장 이외의 간접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병원들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개인들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부 혹은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벌금을 내야하며, 무엇보다, 50인 이상의 고용인 둔 사업자는 고용인 의료보험을 의무로 제공하든지 벌금을 내야 해

끝나지 않은 전쟁

- The Atlantic誌에 따르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Mitt Romney의 러닝 매이트였던 Paul Ryan은 지난 주말 National Review Institute에서의 연설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저항은 끝난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에서는 공화당이 오바마가 추구하는 큰정부에 대해 이론적인 싸움을 벌여 왔다면 이제 그의 두 번째 임

기에서는 그 실상을 파헤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 새 법안이 시행되면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추정하는 대로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적자를 1천9십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법안 반대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소규모 기업들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정규직을 파트타임제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결국 시간이 말해 줄 것
- CBS News 28일자는 비록 오바마 법안이 Affordable Care Act라 불리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험료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온라인 Health Reform Subsidy Calculator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 보도해
- Newsmax는 29일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른 “ObamaCare Survival Guide”를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는 납세자들은 새로운 세금과 부과금의 형태로, 개인과 기업은 벌금의 형태로 오바마케어 재정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법안 시행 시 소비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해
- Small Business Center의 31일자 보도에서는 기업이 법안의 고용인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논하며 Michael S.

Malone의 “The Future Arrived Yesterday: The Rise of the Protean Corporation”이 제시한 Protean Corporation이란 새로운 기업 형태를 소개해: Protean Corporation은 기업의 핵심 기능, 즉, 사업 모델, 전략, 제품구성, 문화 등 기업을 기업이 되게 하는 핵심 기능들만 전담하는 직원들로 기업을 구성하고 나머지 마케팅, 재무, 구입, 회계 등 간접적인 기능들은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기업 형태로 이미 IBM, HP, Microsoft 등 굴지의 기업들이 수년 간 사용해 오던 방식

□ Paul Ryan의 말처럼 이론 전쟁은 끝이 났으나 그와 그의 보수진영 동료들의 뜻처럼 오바마케어의 폐지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여

□ The Atlantic誌는 오바마의 개혁법안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는 사실 2012년 선거가 아니라 법안의 시행 결과를 보게 될 향후 4년이라고 보도해

참고 자료

- Conor Friedersdorf, “We're about to learn who was right about obamacare,” The Atlantic (2013. 1. 29)
- Lauryn Schroeder, “What to expect when Obamacare hits full swing in 2014,” Medill Reports Chicago (2013. 1. 31)
- Rebekah Metzler, “Obamacare repeal still top conservative goal, despite improbability,” U.S.News & World Report (2013. 1. 30)
- Paul Christiansen, “ObamaCare is a game changer, but maybe not as envisioned,” Small Business Center (2013. 1. 31)
- Grace-Marie Turner, “A wise and workable strategy for replacing Obamacare,” The Corner (2013. 1. 29)
- Jim Myers, “ObamaCare survival guide hits new york times bestseller list,” Newsmax (2013. 1. 29)